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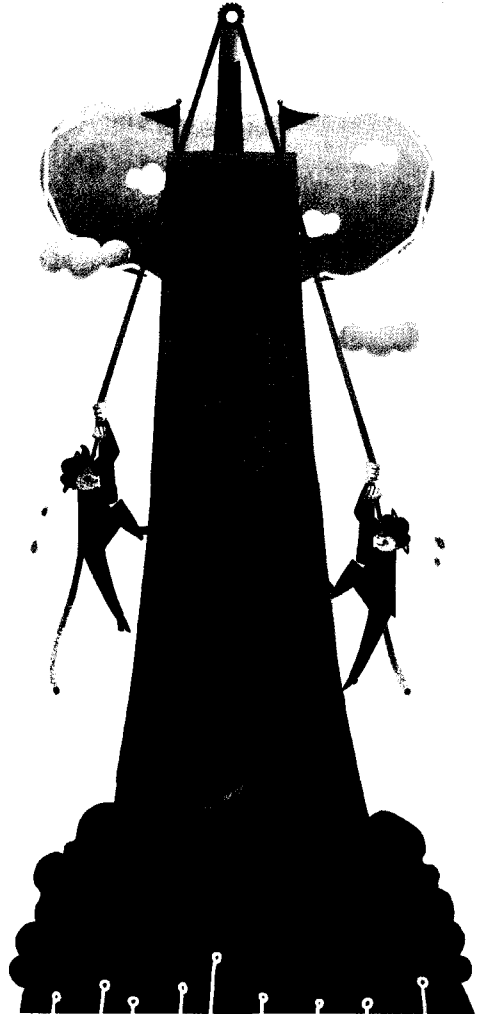
# 지금 대한민국은 왜 공개경쟁에 열광할까

송원이 자유기고가

공개경쟁이 대세다. 한때는 ‘공개 오디션의 아류작이 판을 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치열한 승부에 몰입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며, 매회 발전하는 참가자들에 감동한다. 왜 지금 대한민국은 공개경쟁에 열광하는 것일까.

##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다

시청률 2%만 넘기면 대박이라는 케이블 방송계에서 ‘슈퍼스타K’가 시청률 20%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케이블 방송을 따라하는, 자존심도 없는 공중파 방송이라는 비판이 난무했던 ‘위대한 탄생’은 멘토스쿨 참가자들의 사연이 감동을 주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급기야는 방송사 직원을 뽑는 일,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본연의 역할에까지 경쟁 프로그램 형식을 도입했다. 현재 여러 방송사가 기획, 방영하는 공개경쟁 프로그램은 10여 개에 이른다.



사실 공개경쟁 프로그램은 색다른 예능 포맷의 의미가 컸다. 스타급 출연자를 확보하기 힘든 케이블 방송은 ‘스타 메이킹’ 전략으로 공개경쟁을 도입했다. 미국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포맷을 그대로 따온 ‘슈퍼스타K’에서 보듯, 기획력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불리한 현실이 공개경쟁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시선은 달랐다. 참가자들의 사연과 변화, 탈락과 합격, 눈물과 웃음에 시청자들은 몰입하기 시작했다. 일단 세상은 이 열풍의 근원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지적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

정한 사회를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참가자들의 실력과 도전 과정을 낱알이 파약할 수 있는 공개경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은 대리만족을 얻는다는 설명이다.

###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다

참가자들의 성장도 주목받는 요소다. 푹푹하다 못해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고, TV를 보는 평범한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참가자가 회를 거듭할수록 심사위원(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발전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마치 나의 발전인양 기뻐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발 한발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공감하는 것이다.

독설과 훈훈한 격려가 뒤섞인 심사위원의 한마디도 재미를 준다. '위대한 탄생'이 '슈퍼스타K'의 아류작이라는 오명을 벗어난 결정적 계기는 심사위원들이 평가자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성장을 이끄는 책임자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김태원은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고, 방시혁은 차가운 독설로 참가자들의 반성과 부활 의지를 이끌어냈다. 이 역시 세상살이에 지친 나에게 전문 역량뿐만 아니라 삶의 지표까지 알려주는 멘토를 만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를 꿰뚫은 구성이다. 사람과 사람, 스승과 제자가 만나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 또한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부분. 사람을 키울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조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은 사회적 토론거리를 만들어 냈다. 김태원이 탈락자들을 콘서트 마지막 무대에 서게 한 것도, 멘티들에게 "너희 같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 애정 어린 조언을 한 것도 리더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안이다. 물론 더 크게 보면 기넌 곳 없는 이 시대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매스미디어의 힘이다.

### 1등, 그 이후의 이야기

더욱 긍정적인 것은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시청자들도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를 찾아나서는 미디어의 속성을 파악한다. 즉 프로그램에서 1등을 거머쥐는 것보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여전히 음악을 좋아하고 끝까지 매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강조하는 개성, 나만의 색깔 역시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진학, 취업 어느 하나 쉽지 않은 현실에서 남을 좇지 않고, 개성 있는 내가 되어 역할을 즐기는 사람만이 프로페셔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공개경쟁 프로그램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